

# 화순군, 차세대 글로벌 바이오 선진도시로 '발돋움'



화순백신산업특구 기념 조형물. (화순군 제공)

## 과기부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선정...440억 확보 조선대·성균관대·GIST·연세대 병원 등 연구·임상 참여

화순군이 차세대 바이오 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로 글로벌 바이오 선진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끌고 있다.

6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과기부 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신규 공모사업인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미래 유망 바이오 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과기부의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신규 과제 중 하나로 5년간 총사업비 440억원(국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2~50개 정도가 연결된 물질로 부작용이 낮고, 상대적으로 쉽게 제조할 수 있어 합성의약품에 비해 신약 성공률이 2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 의약품으로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인슐린 제제가 있으며, 2022년 기준 펩타이드 의약품 글로벌 시장 규모는 60조원이며, 2030년에는 10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화순군은 '백신'과 '면역 치료제'를 이어가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의 차세대 특화 분야로 '펩타이드'를 선정했다.

주요 사업은 ▲펩타이드 타겟 질환 선도·후보물질 발굴 ▲펩타이드 제형화 기술 개발 ▲펩타이드 대량 합성 기술 개발 ▲펩타이드 라이브러리 D/B 구축 등 펩타이드 첨단신약 원천기술

개발이며, 2028년까지 화순 생물·의약 제2산단에 연구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조선대학교를 중심으로 5개의 공동연구팀(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주)디큐어, (주)비드테크)과 5개의 위탁연구팀(광주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 (주)렉스팜)이 참여하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서울아산병원, 을지대 병원은 임상 자문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구부군 구수는 "국내 유일 백신산업 특구를 보유한 화순군은 '면역치료

제', 'RNA 치료제'와 관련한 국비 예산을 확보해 사업 추진 중"이라며 "이번 선정으로 과기부가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에서 발표한 차세대 첨단신약 유형(단백질 분해 치료제, 면역치료제, RNA 치료제, 펩타이드 치료제) 중 3개의 연구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하고 펩타이드 의약품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화순=이병철기자



장성군을 비롯한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최근 간담회를 갖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공동건의 (장성군 제공)

## 전남 4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 장성·나주·화순·담양 공동 건의문 정부 전달 지역소멸 가속화...지역발전 저해 장애 요소

장성군을 포함한 4개 전남 시군이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최근 간담회를 갖고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전남도의 개발제한구역 규모는 총 257㎢로 이 가운데 장성군이 79㎢, 나주시 39㎢, 담양군 108㎢, 화순군 41㎢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건의문 서명 및 발표에 나선 김한중 장성군수와 윤병태 나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등 도움

을 줬지만, 오늘날에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라고 짚었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주도 정책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유지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의 3분의2가 산지인 점을 감안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자연 보호에 끼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누적된 피해를 보듬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지역민 의견"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건의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2월21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의 경우, 사업 총량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지자체 추진 사업으로 국한하고, 일부 환경평가 상위 등급 면적을 신규 개발제한구역으로 대해 지정해야 한다는 데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균형 발전만이 굳건한 국력의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며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군민의 염원인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남권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이날 발표한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조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 곡성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

### 19~64세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대상

곡성군은 "최근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일상 돌봄 서비스란 곡성군의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는 재가 돌봄·가사서비스와 병행 등 돌봄형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39세 청년이다. 소득요건은 없으나 중위소득 구간별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이 사업은 모집인원 충족 시 까지 연중 상시 모집할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본인 또는 대리 신청자는 신분증과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맞춤형복지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6개월이며,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청·중장년층이 '일상 돌봄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구례군, 꿀수박 출하 준비 '한창'

### 섬진강 청정 지역에서 재배...게르마늄 함량 5배 ↑

구례군은 6일 "맑고 깨끗한 섬진강 청정 지역에서 재배되는 꿀수박(사진) 출하 준비가 한창"이라고 밝혔다.

구례군은 변성암 분포도가 넓은 지질학적 특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토양 속 게르마늄 함량이 5배 가량 높아

건강하고 깨끗한 전국 최고의 수박 산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구례 수박 품질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 농가 19ha를 대상으로 12만9천주의 수박 모종 구입비를 지원했다.



주력 품종은 조은꿀, 나이스꿀, 조생흑미 등으로 현재 생산 중인 구례 수박은 5월 중순부터 소비자에게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구례=임종길 기자

## LG화학 여수공장, '지니데이' 선물 전달

### 지역아동센터 250명 소원 청취 후 필요 선물 후원

LG화학 여수공장은 "최근 어린이 날을 맞아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들의 필요 선물을 지원하는 '지니데이(Genie Day)' 전달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행사는 정기명 시장, 김정희 여수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이현규 LG화학 주재임원, 나민수 대외협력담당, 이월성 HR담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250명을 대상으로 선물을 전달했다.

'지니데이'는 LG화학의 임직원이 랩프의 요청 지니가 돼 청소년들의 소원·사연을 들은 뒤 필요한 선물을 후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0년 처음 시작해 올해 15년째를 맞이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날 15~26일

2주간 지역 내 40개 지역아동센터 250여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연과 가지고 싶은 품목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재학 중인 학생은 "지니아, 식당에서 일하느라 바쁜

엄마를 위해 예쁜 립스틱과 썬크림을 어버이날에 선물하고 싶다"고 사연을 작성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현규 LG화학 주재임원은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었던 물품을 가질 수 있는 기쁨과 가족들과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고흥 시골마을서 세쌍둥이 탄생 '화제'

### 총 1억5천만원 지원...스마트TV·축복꾸러미 전달

고흥군 남양면 작은 마을에 지난 1월 세쌍둥이가 태어나 마을 전체가 아기 출산을 축하하는 분위기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군수는 가정의 달인 5월 첫날, 세쌍둥이의 가정을 방문해 출산 축하 선물로 65인치 스마트 TV와 축복꾸러미, 청년부부아 이안심용품 등을 전달했다.

전달된 65인치 스마트 TV는 지난날 18일 SM그룹에서 고흥군 출산 가정을 위해 기탁한 제품이며, 이번 남양면 세쌍둥이 가정이 1호 선물 대상자로 선정됐다. 출산 가정의 세쌍둥이는 남아 1명, 여아 2명으로 현재 산모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또 출산 축복꾸러미는 미역, 김, 소고기, 쌀, 고흥사랑상품권으로 구성된 축하 선물로 2019년부터 출산가정에 전달

하고 있다.

세쌍둥이 출산가정에는 국가에서 주는 현금성 지원금을 포함한 고흥군의 출산장려금 3천240만원, 산모 건강 회복비 190만원, 돌맞이 축하금 150만원, 쌍둥이 행복 축하금 50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저출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경사스러운 세쌍둥이 출산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세쌍둥이 모두 고흥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 돌봄 어린이집, 조산 놀이방을 운영 중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군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아동 돌봄을 위한 시책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고흥=최복환 기자



## 담양문화원-구영웅 사진작가, 사진작품 기증 협약

### 사진기기 67점·작품 27점 기증

담양문화원은 "최근 광주에 거주하는 구영웅(88) 사진작가가 수십 년 동안 수집한 사진기기와 사진작품 등을 본원에 기증하기로 협약하고 기증품을 인수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구영웅 작가는 "40여년을 교직에 몸담아온 교육자로서 1982년부터 현재까지 사진작가 활동 중에 수집하고 활용했던 사진기기 67점과 작품 27점을 본원에 전시해 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역사적 산물을 통해 사진기기와 사진들을 재조명하고 취미활동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강성남 담양문화원장은 "기증품들



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이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영웅 작가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과 전국사진작가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사진전 7회,

여러 권의 사진작품집을 출간했다. 또한 평생 수집해 온 영상기기와 사진기기 등을 본원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에도 기증해 사진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담양=정승규 기자